

담임목사 윤명호 Rev. David M. Yoon  
210 Washington Ave. Little Ferry, NJ 07643  
교회. 201-229-1561 Fax. 201-2291562



E: info@dongsanchurch.org W: www.dongsanchurch.org Youtube: https://youtube.com/c/njdac

# Promise Land

약속의 땅 이야기

아름다운 성전을  
선물로 주심에  
감사하며  
오직 주님의 영광을  
만방에 선포하는  
은혜로운  
성전건축 헌당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 수요저녁예배 오후 8시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경배찬양 다같이  
기도 한정미 권사  
성경봉독 이사야 43:18-21  
말씀선포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정명진 목사  
찬양 나의 가는 길  
축도 윤명호 목사

## 새벽 기도회

### 매일성경QT

시편 22-23편 하박국1-3장  
월-토 새벽 5시 30분  
(on-line)

## 금요일기도회 오후8:30

온라인으로 모입니다!

## 2020년 5월 24일 부활절 후 일곱 번째 주일 예배

주일 오전 10시-Online  
EM(ANM) 오후 1:30 Online

- \* 예배에의 부름 다함께
- \* 사도신경 다같이
- \* 확신찬양 43장
- 중보기도 김형모 장로
- 특별순서 김형태 집사
- 성도의 교제 다같이
- 교회소식 인도자
- 성경봉독 고전 11:23-26
- 말씀선포 "기억하라"  
윤명호 목사
- 헌신찬양 144장
- \* 축도 윤명호 목사

모든 예배는 온라인에서  
실시간으로 들려집니다

\* 표는 모두 일어서서

### 담임 목회자 방송 선교

AM 1660 7:00 am(토) 설교  
1:50 pm(토) 에세이  
6:25 am(주일), 2:25 pm(주일)



# 교회소식

Rejoice in the Lord always. I will say it again: Rejoice! Let your gentleness be evident to all. The Lord is near. Do not be anxious about anything, but in everything, by prayer and petition, with thanksgiving, present your requests to God. And the peace of God, which transcends all understanding, will guard your hearts and your minds in Christ Jesus. Philippians 4:4-7

2020포어  
내가 매일 기쁘게

1. **교회당 예배안내**, 뉴저지 주정부의 지침에 따라, 교회당 예배를 단계별 재개.
2. **온라인 심방**, 오늘 주일부터 온라인으로 심방 실시. (참여자: 교역자, 담당 장로, 교구장)
3. **성령강림주일**, 일시: 오는 주일 (5.31일)
4. **교회 방문 기도 시간**, Open hours: 7am-6pm (월-금) 7am-2pm (토, 주일)
5. **'매일성경' 큐티북 영어/한국어 (5-6월)**, 교회 강대상 앞 비치. (책 1권값 \$5)
6. **전교인 온라인 토요 새벽기도회**, 일시: 매주 토요일 5:30am
7. **"코로나 특별 섬김팀"**: 도움이 필요하신 분을 아시면 꼭 섬김팀으로 연락 요망. 장영식장로님(팀장) 201-741-4488, 홍인기집사님, 201-290-3968
8. **풍요로운 삶 온라인 성경공부**,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7:30pm, 장소: 온라인, 대상자: 신무철, 신경은, 장민구성도님, 인도자: 윤경화사모님,
9. **작은 목자의 삶 1권**, 일시: 매주 목요일 8pm, 대상자: 김진아, 김혜경, 우동숙, 이정숙, 이중호장로님, 인도자: 장영식장로님 내외분/ 홍인기집사님
10. **작은 목자의 삶 5권**, 일시: 매주 월요일 7:30pm, 대상자: 이지연, 이승희, 우은주, 김병희, 김원태, 이수연자매님.
11. **작은 목자의 삶 6권**, 일시: 매주 토요일 6:30am, 대상자: 윤영화, 가옥란, 전옥순권사님, 인도자: 윤경화사모님
12. **동산성경학교 (풍삼, 풍빛, 작목삼, 강사교육 및 각종 성경공부 안내)**, 코디네이터: 윤경화사모 (201-585-1985). 카톡으로 성경공부 sign up 해 주세요.
13. **온라인 예배 및 헌금 안내**: 교회 홈페이지 ([www.dongsanchurch.org](http://www.dongsanchurch.org))에 '온라인 예배 및 헌금하기'에서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 함께 기도해 주세요

1. 코로나 사태가 조속히 진정되고 예배당 예배가 온전히 회복되도록
2. 우리 자신을 지켜 주시고, 주변에 어려움을 겪는 형제 자매를 위한 중보기도 (셀/교구 가족들)
3. 5월의 선교사: 인도에서 사역하시는 김덕래/초미성 선교사님과 아마존 선교를 하시는 양성식/김혜정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
4. 123대가 함께하는 선교전진기지로 성전 건축 헌당이 2년 안에 이루어지도록
5. 남북한이 복음안에서 통일되도록

주일예배기도		수요예배기도	
5.31	정다니엘	6. 3	남인순
6. 7	정우원	6.10	김영숙
6.14	장영식	6.17	정정옥

## 2020년 2/4분기 행사일정

- \* 메모리얼데이, 5.25일
- \* 성령강림주일, 5.30일
- \* 삼위일체주일, 6.7일
- \* 동산 봄철 운동회, 6.14일
- \* 아버지 주일, 6.21일
- \* 상반기 비전제직회, 6.21일
- \* 창립 35주년 감사예배, 6.29일

## 주요모임안내

- \* ANM(EM) 예배, 주일 1:30pm, online
- \* ANM(EM) 주중모임 목요일 7pm, online
- \* 유초등부 주중모임수요일 4:30pm, online
- \* 중고등부 주중모임, 수요일 7pm, online
- \* 각 기관별 모임, 5월 중, online
- \* 각 위원회별 모임, 5월 중, online
- \* 온세대금요밤기도회, 오는 금요일(29일)



담임목사 윤명호

## “하나님 색깔”

(The color of the Lord)

**세** 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아마 고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고아란 부모가 없는 어린 아이를 뜻합니다. 부모가 버린 아이일 수도 있고, 부모를 여윈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어느 경우든, 부모가 없기에 아무도 저를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가련한 존재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가족은 아버님의 사업 부도로 인해, 뿔뿔히 헤어져 살던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친척집에 보내어져, 한 동안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가까운 친척이라곤 하지만, 모두가 힘들게 살 때였기에, 그 가정도 저같은 군식구를 오래 데리고 있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저는 그곳에서, 눈치밥이 뭔지를 처음 알게 되었습니다. 앓으나 서나 바늘방석, 동그란 밥상에서 함께 밥을 먹었는데, 젓가락을 어디다 두어야 할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때 소원은 딱 하나, 부모님을 다시 만나, 함께 사는 것이었습니다. **아빠 엄마가 살아 계시고, 어린 자녀와 함께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감했습니다.**

매우 오래 전, 학창시절에, 크게 은혜받았던 성가곡이 있습니다. 맨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충격과 감동을 받았던 성가곡입니다. 제목은 엘리야의 하나님입니다. 가사는 대략적으로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불로서 태워 버린 여호와여, 엘리야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은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간곡한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소서’라고 기억합니다. 구약성경, 북이스라엘 아합왕 시절에, 북이스라엘은 우상숭배로 인해, 크게 타락했습니다. 저들은 여호와를 버리고, 새긴 우상앞에 절하며, 바알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습니다. 엘리야는 누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인지를 증명하기 위해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영적 대결을 벌입니다. 대결의 내용은 **갈멜산에서 쌓은 번제물을 우리 기도의 응답으로 불로서 태워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은 하루 종일, 자기 몸을 찢으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바알과 아세라는 불러도 대답없는 이름이요, 부르다 내가 죽을 이름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주님의 이름을 불렀을 때, 하나님께서는 불로서 응답하시어, 쌓은 번제물을 다 태워 버리심으로 당신의 살아계심을 온 세상에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에 오셨던, 부흥 강사님이 설교중에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만약 하나님께 색깔이 있으시다면 무슨 색깔이겠느냐고 물었습니다. 어리둥절해하는 성도님들께 그분은 하나님은 아마도 파란 색일 거라 하셨습니다. 이유는, ‘**시퍼렇게 살아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시는,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고아입니다. 그를 지켜주고, 먹여주고, 안전하게 돌봐 줄, 부모가 없는 아이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돌아가신 부모님은 살아있는 어린 자녀들에게 아무런 힘도 도움도 되어 주실 수 없습니다. 저는 어릴 때, **부모님이 어린 자녀와 함께 살아만 계셔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절감했었습니다.** 그런데 매우 감사하게도,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불러도 대답없는, 그안에 생명없는 우상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친히 말씀하시기를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따라, 모든 환란가운데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지금부터 영원토록 복주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요즘 비록 코로나사태로 인해, 많이 불안하고 답답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 모두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살롱.**